



RaonAtti

팡가시난팀 최종 보고서



RABA

(박청열, 박형준, 백희진, 오선빈)

목 차



Raonatti | 6_RaBa

1. RaBa 그리고 안양YMCA
2. RaBa의 안양에서 살아남기
3. 사람책 도서관
4. YMCA 아기스포츠단
5. Magandang umaga po Philippines
6.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7. 무빙스쿨
8. Salamat po AnYang ☺



RaomAtti



1. RaBa 그리고 안양YM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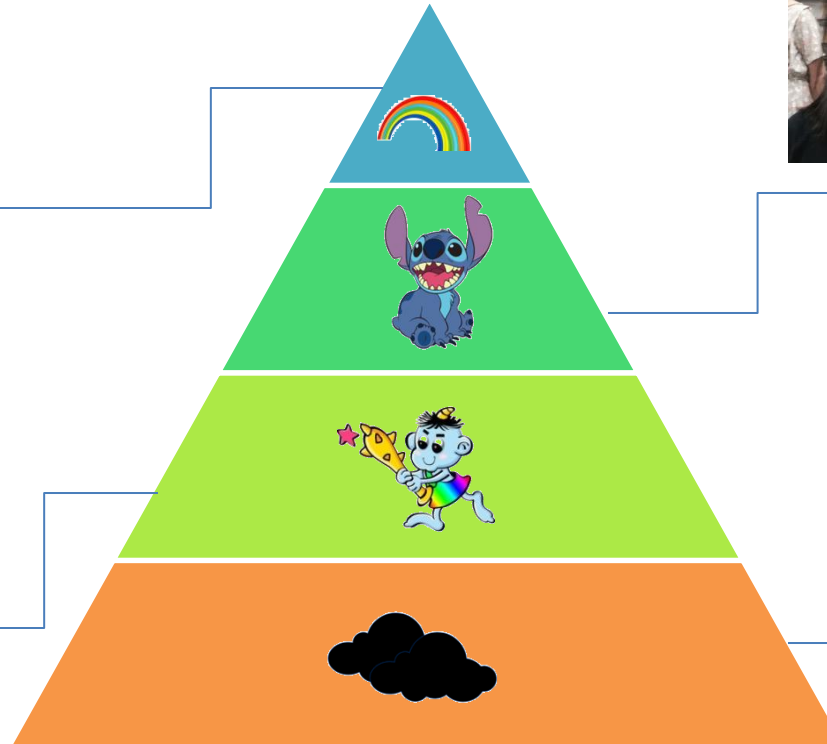
RaBa를 소개합니다!

- 란?

☞ Raon + Banana의 준말로 7월 28일 새벽 도깨비의 고뇌를 통해 탄생한 이름

☞ 필리핀의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인 바나나와 즐거운 팀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팡가시난 현지에서 친근하게 볼 수 있는 바나나처럼 우리의 존재도 현지 친구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고 싶다.

RaBa를 소개합니다!





RaBa를 소개합니다!

이름 : 열청열청
나이 : 반오십
자주하는 말 : 집에 가고싶다,
처리해, 만지지마\요, 머물래?
그래도 든든한 귀염둥이 영아 ♥

이름 : 보급형 조승우
나이 : 스물째살
자주하는 말 : 짜늘하다, 어이
특이사항 : 맨날 루미큐브 3등
팀의 분위기 메이커 ♣

이름 : 여왕벌
나이 : 서열1위
그녀 앞에선 아무말도 못한다...
특이사항 : 유리몸, 벌레혐오증
가모장적인 여자

이름 : 스티치
나이 : 사랑스런 막둥이
웃음소리 : 캉캉캉캉캉캉캉
특이사항 : 아재입맛, 한글선생님인데
한글을 못함...
어른스런 우리 막내



안양 YMCA 소개



안양 YMCA 소개



당나귀 방문



생협 방문

안양 YMCA 소개

- 안양 YMCA에 대한 소개를 듣고 진행하는 프로그램, 추구하는 가치 및 방향에 대한 것들을 비롯하여 피드백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또한 실제로 추구하는 방향 및 가치가 분출되는 주변 협동조합인 생협과 당나귀를 방문함으로써 주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사항에 대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나는 왜 여기에 왔을까





나는 왜 여기에 왔을까

- 집체 훈련에서의 활동을 스스로 정리하고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
- 각자 쓴 글을 바탕으로 당나귀에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지난 훈련기간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며 생각한 여러 가지 의문과 깨달은 점, 새롭게 배운 것들을 통하여 앞으로 남은 훈련에 대한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짐으로써 팀원 각 구성원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팀 면담(가치관 경매)



팀 면담(가치관 경매)

- 팀 구성원 각자 개인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각자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다름을 게임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존중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 가치관의 형성과정이 다르다는 것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눔으로써 팀원 간의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서로 배움





서로 배움

1) 서로 배움(무지개)

- 성교육을 통한 성지식 확립과 바른 성생활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았다.

2) 서로 배움(도깨비)

-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방법과 주의사항등에 대한 것들을 배웠다.



서로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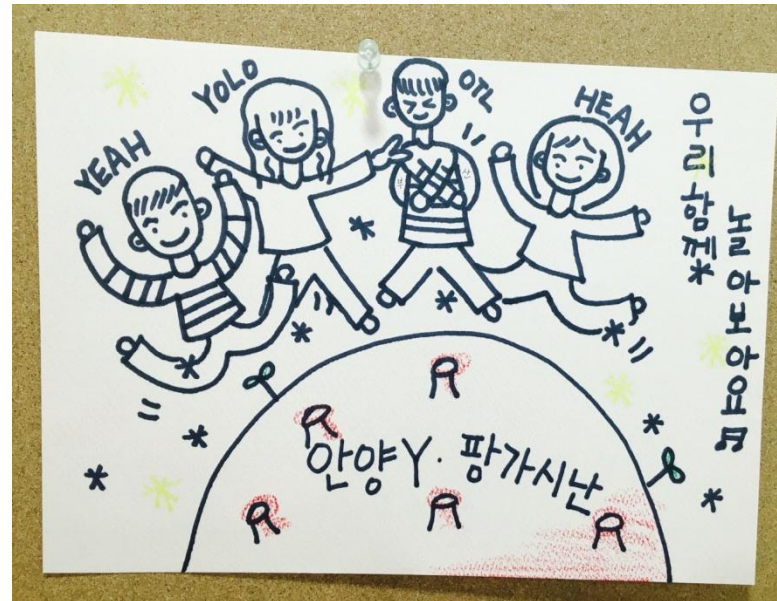
3) 서로 배움(먹구름)

- 주변에 가까운 경제 상식 교육을 통하여 경제적 감각을 향상시켰다.

4) 서로 배움(스티치)

- 다문화 가정과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 및 재외동포 감수성을 높였다.

Ra**o**mAtti



2. RaBa의 안양에서 살아남기



RaBa의 안양에서 살아남기

1) 생활 부분

- 팀이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안양에서의 국내 훈련이 시작했다.
- 삼시세끼를 직접 해먹어야 했으나 근 2주간 점심은 아기스포츠단과 함께 먹을 수 있었다.
- 또한 식사재료는 생협에서 주로 구매했다.
- 식사 준비를 모두가 함께 협동하며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다.
- 잘 나오는 온수와 팀원간 10분간의 샤워시간이 잘 이루어져 샤워에 서는 큰 불편함이 없었다.



RaBa의 안양에서 살아남기

1) 생활 부분

- 숙소 또한 큰 불편함이 없었다. 안양YMCA의 많은 배려 덕분에 편안하게 쉴 수 있었다.
- 보드게임, 공기놀이 등 이 곳에 있는 장난감으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 식사 재료 외에도 필요한 생필품이나 간식 등을 생협에서 구매했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 근처 마트에서 구매하기도 했다.
- 훈련 중, YMCA 앞에 있는 GS25 이용의 빈도가 높았다.



RaBa의 안양에서 살아남기

2) 주말 미션

- 안양에 온 첫 주말, 주말 미션을 받게 되었다.
- ‘넷이서 신나게 놀기’라는 미션으로 인덕원 롯데시네마에서 ‘부산행’을 관람했다.
- 두 번째 주말의 미션은 ‘안양지역 탐방’이었다.
- 하지만 자전거국토순례 응원과 더운 날씨로 일정을 취소하게 되었다.

RoomAtti



3. 사람책 도서관

사람책 도서관



사람책 도서관

1) 어린이의 귀재 “심춘연(나비) 선생님”

- 아이들과의 놀이 진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 숙지를 통하여 놀이와 아이들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실습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한 피드백을 받았다.
- 그리고 주변의 흔한 물건들을 가지고 간단하고 재미있는 놀이창작을 통하여 창의력을 제고시켰다.

사람책 도서관



사람책 도서관

2) 몸놀이 선생님 “김창욱(달봉) 선생님”

- 몸놀이의 정의와 선생님의 교육 철학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드백을 주고 받았다.
- 몸놀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드백을 통하여 개인의견을 주고 받음으로써 생각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몸놀이의 종류, 방식, 창작방법에 대해 배우고 해보았다.
-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직접 몸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현장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사람책 도서관



사람책 도서관

3) 언론을 통해 사람을 만나다 “정홍모 이사님”

- 지역 사회 및 공동체의 복구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 언론의 중요성 및 역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듣고 각자가 작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사람책 도서관



사람책 도서관

4) 마을을 만나다. “우경희 인덕원마을 코디네이터님”

- 인덕원 마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탐방해 봄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 ‘좋은 마을 만들기’ 라는 공동체 복구 운동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행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눈으로 봄으로써 다양한 실천방법 및 주의사항을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다.

사람책 도서관





사람책 도서관

5)자전거 살림터 이준우 선생님

- 자전거의 사용에 따른 친환경적인 효과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 자전거를 생활화 하였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다.
-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수칙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다.

RaomAtti



4. YMCA 아기스포츠단

YMCA 아기스포츠탄





YMCA 아기스포츠단

- 아기 스포츠단 방학식 참가를 통해 아이들과 첫 대면을 했다.
- 아기 스포츠단의 ‘여름날의 음악회’ 참여를 통해 아이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아이들의 순수함과 부모님들의 노력이 감동을 받았다.
- 아기 스포츠단과의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방문을 통해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YMCA 아기스포츠단





YMCA 아가스포츠팀단

1)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보자! [별꽃 몸 놀이1 - 점토놀이]

- 별꽃반 아이들과의 점토놀이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했다.
- 점토놀이를 하면서 아이들과 많이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낯설어 하던 우리와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 아이들의 순수함과 창의력에 웃음짓던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YMCA 아기스포츠단





YMCA 아기스포츠팀단

2)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보자! [별꽃 몸 놀이2 - 물총놀이]

- 별꽃반 아이들과 코뿔소 놀이터에서 물총놀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
-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신나게 뛰어다니며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다.
-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 하나로 아이들과 물총놀이를 할 수 있었다.

YMCA 아기사포츠단





YMCA 아기스포츠택단

3)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보자! [별꽃 몸 놀이3 – 밧줄놀이]

- 별꽃반 아이들과 물방울 놀이터를 갈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YMCA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달봉선생님과 몸놀이 시간에 배웠던 밧줄을 이용해 놀이기구를 만들었다.
- 그물놀이와 케이블카, 그네를 만들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재료로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만들어 줄 수 있었다.

RoomAtt



5. Magandang umaga po Philippines

팡가시난 YMCA 선물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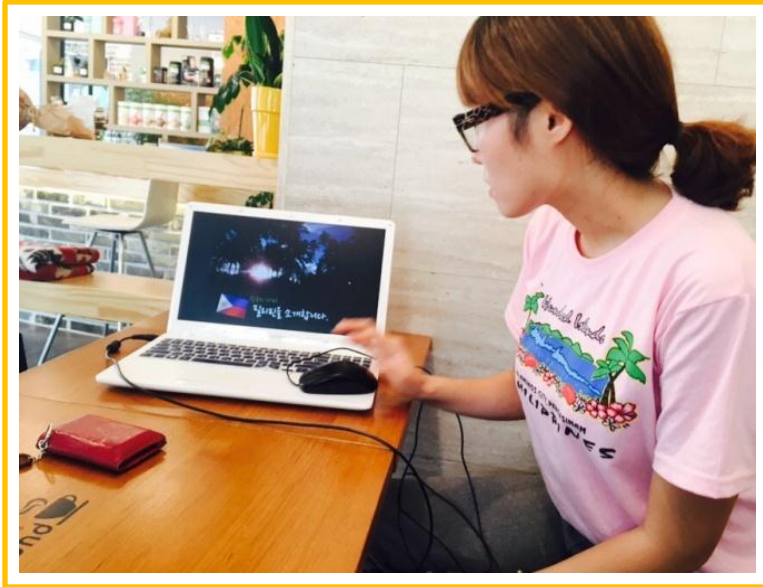




평가시난 YMCA 선물 만들기

- 바늘귀에 걸린 실을 방문하여 평가시난 YMCA 현지에 전달할 선물을 만들었다.
-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 했고, 청바지와 천을 활용한 벽걸이 수납장을 만들기로 했다.
- 선물을 만들면서 일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한 팀워크를 다졌다.

필리핀 문화 배우기





필리핀 문화 배우기

- 필리핀 문화에 대해 오로라 선생님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퀴즈 형식으로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 필리핀의 인구, 국기 등 기초적인 지식부터 음식, 언어, 생활양식 등 전반적인 필리핀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 했다.
- 10기 선배단원인 오로라선생님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

14기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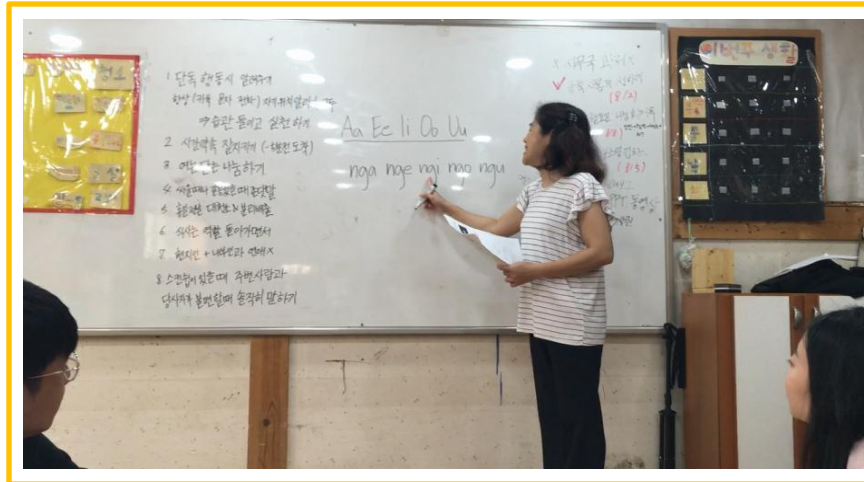




14기와의 만남

- 활동기간이 겹치는 전 기수인 14기와의 만남을 통하여 현장 정보를 들었다.
- 현장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와 주의점, 어려웠던 점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 팡가시난의 생활 이후의 생각들을 공유했다.

파갈로그어 배우기





따갈로그어 배우기

- 필리핀 현지에서는 영어, 따갈로그어, 지역언어를 사용한다.
- 따라서 필리핀의 제1언어인 따갈로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 웬시 선생님과 매일 아침 10시부터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따갈로그어 수업을 진행했다.
- 기초 회화와 단어 중심으로 따갈로그어 수업을 진행했다.

RaomAtti



6.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안양YMCA의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인 인생학교 친구들과 함께 3박 4일의 일정으로 전라북도 완주로 떠났다.
- 대중교통으로 목적지까지 찾아가기부터 라온아띠 사람책 도서관, 공동체놀이, 물놀이, 나를 찾는 활동 등 나를 찾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냄
- 인생학교 친구들에게 든든한 형, 누나, 오빠, 언니가 되어주며 서로의 추억을 만듦

RaonAt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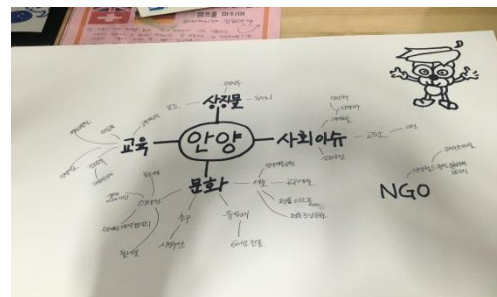


7. 무빙 스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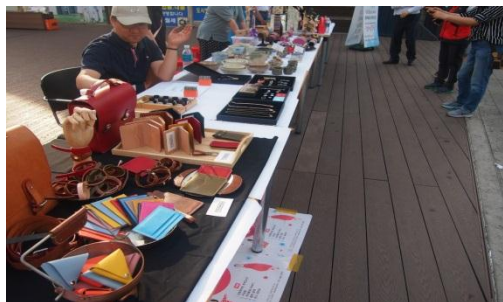
무빙스쿨 준비하기



오로라 선생님과 무빙스쿨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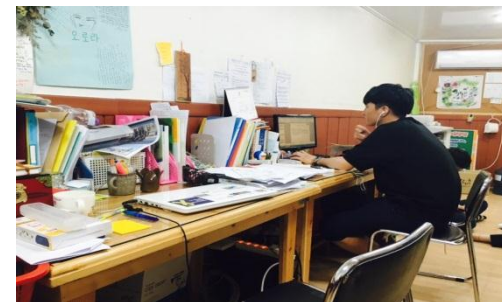
주제 선정 회의



기관 선정



기관 연락



기관 방문 준비하기

무빙스쿨 준비하기

- 조에서 안양 지역의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해 관련 기관 혹은 장소를 방문해보는 무빙스쿨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안양하면 떠오르는 주제들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 ‘교육’이란 관심사가 설정이 되었고, 그 중 안양만의 특색인 ‘평생교육’이란 주제가 선택했다.
- 평생교육 관련 기관 선정 중 안양의 ‘평생학습거리’를 알게 되었고, 이 곳으로 무빙스쿨을 선정했다.
- 한국평생교육사 안양지부와의 연락을 통해 무빙스쿨 최종확정했다.

무빙 스쿨





무빙 스쿨

무빙 스쿨 인터뷰

- 안양 평생교육거리 방문을 통하여 기획자의 의도, 평생 교육거리의 현황, 최종목적 등에 대해 들었다.
- 외부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획하고 형성된 평생학습거리의 모습에서 작은 개개인들의 모임이 낼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무빙 스쿨

무빙 스쿨 인터뷰

- 교육적 인프라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재능기부의 형태로 제의
- 만들어 진지 2년 차로 이슈화되어 있다.
- 다른 보조를 일체 받지 않고 철저히 재능기부로만 이뤄지고 있다.
- 수강 인원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이다.
- 안양 시민 외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 이슈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능 기부의 종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무빙 스쿨

무빙 스쿨 인터뷰

-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높다.
-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의 수강률이 높다
- 20대는 관심이 저조해서 참여율이 낮다.
- 협의회를 2달에 한 번씩 가지면서 개선시키고 있다.
- 시민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나타난다.



무빙 스쿨

무빙 스쿨 인터뷰

- 가장 수요가 많은 분야는 생활 공예 공방과 제과, 제빵이다.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마다 평생학습 프리마켓을 개최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강의는 연달아 신청이 불가능하다.
-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강의를 마친 후 집에 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최종 목표는 주변의 많은 학교와 평생학습거리의 콜라보를 통해 교육특화 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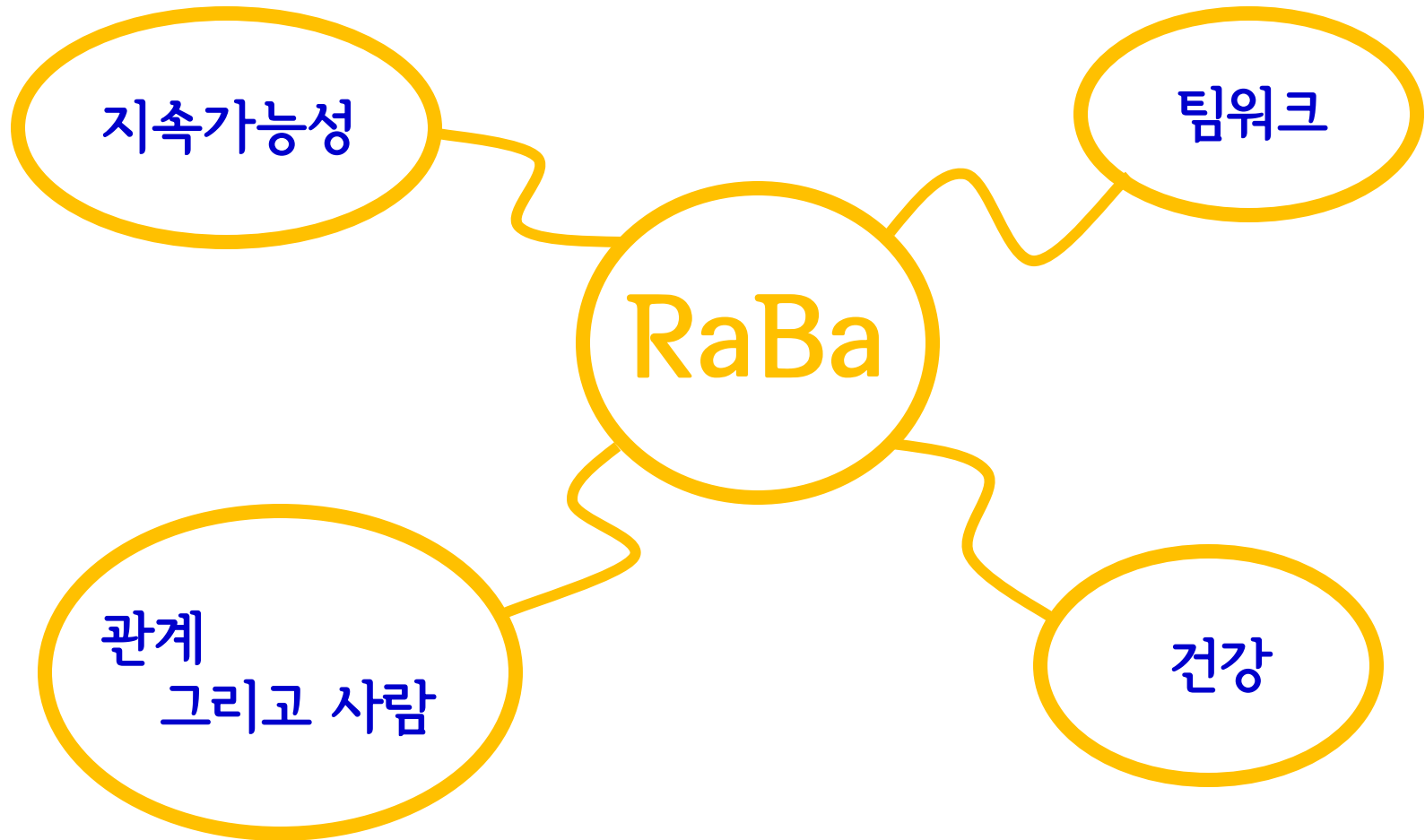
RaomAtti



8. Selamat po AnYang ☺



훈련동안 가졌던 고민거리





Salamat po AnYang ☺



‘무제’

지역 NGO 훈련 과정 중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원래 사회복지, 봉사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 든 생각은 이른바 천민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보고 그 해결방안들이 진정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이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다. 결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에 불과한 미봉책에 가깝다는 생각이 수 없이 들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옳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행위들에 대한 당위성의 명백한 존재 유무와 그 당위성을 가지고 현실적인 설득이 가능해야 했다고 생각했다.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이 수혜층 개인별 서비스의 제공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층 집단의 행동에 근본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용역은 비영리단체들이 보다 시장정향적 실행에 적응하고 지역사회 의 욕구보다 개인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강요되므로 비영리단체의 탈정치화를 조장한다. 일반시민은 정치적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시민의 위치에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 또는 서비스 전달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탈정치화로 인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시민참여의 문제이다. NGO의 권익주창 활동이 지배적이면서 일반 시민은 참여하지 않고 변호사등의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며, 또 NGO의 상업화 추세로 회원 봉사자보다 전문가 중심의 정부 프로그램 수행이 늘면서 NGO의 정체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NGO는 개인 회원들을 갖고 있지 않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권, 환경, 여성, 소비자 권리, 사형제 폐지, 동물권리 등 무수한 권익 주창에 초점을 맞춘 신 사회 운동으로서 NGO 활동은 전문지식인의 역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언론에 알리고 정부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는 권익주창 활동은 불가피하게 소수의 전문활동가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각계의 전문지식인이 NGO의 조직과 관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직업인으로서 NGO 활동가가 지식인 집단으로 발전하는 추세가 더욱 강하다. 또 다른 문제는 시민참여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캠페인 참여, 모금활동, 회의와 집회의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부 등 정치적, 사회적 참여에서 다수인 중, 저소득층의 참여는 저조하며, 소수인 중상류층이 주도하는 참여가 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영향을 바꿀놓을 수 있는 막강한 시민사회 기관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 시민사회 자체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더욱 강화 혹은 배가시키고 있다.



Salamat po AnYang ☺



‘무제’

따라서 민주주의와 정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평가할 때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적 배경(교육, 소득, 직업 등)이 결코 경시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이다. 시민참여의 불평등 추세는 시민 전체의 공익보다는 일부 참여층의 개별적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의 왜곡을 초래하며 민주적 대표성 문제를 제기한다. 자원과 교육으로 개인적 정치접근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혜택을 받는다. 그렇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며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또한 NGO의 특성상 재정 자립이 어렵다. 다른 곳의 도움에 막연히 기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좁은 운신의 폭을 가진다. 재정확충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만들어지고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거로 회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과 행위들을 보며 진정으로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다. 이러한 많은 한계 속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하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다. 진정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과 내 스스로 미비함에 대한 회의감이 지속적으로 들었다.





Salamat po AnYang ☺



‘단순하게 살자’

국내훈련이 거의 막바지에 다가오자 라온아띠 최종 합격한 당일 날이 기억이 난다. 늦잠을 자던 중 정신 없이 전화를 받았고 기쁨에 못 이겨 팔짝팔짝 뛰던 내가 생각났다. 기쁨도 잠시 라온아띠는 나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처음엔 너무 무거웠고 힘들었다. 가끔은 내가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생각날 때 마다 쓰던 일기쓰기가 조금 난감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매 순간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말할 때 솔직해지지 못했고 20명이 함께했던 시간 속에선 가식적이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다. 안양 YMCA로 이동하고 나선 비교적 시간이 많이 생겼고 주입식 같던 수업도 거의 없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편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팀원들간 사생활이 섞이고 여전히 나만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시간이 없어서 점점 지쳐갔다. 계속 몸과 마음이 힘들었다. 그런데 농활을 다녀 온 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매 순간 힘들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라온아띠 프로그램이라는 틀에 갇혀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맞는 것 같다. 오늘 솜사탕 선생님이 배를 비유해서 해주신 말씀처럼 “때론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 갈 때도 있다”라는 말씀처럼 너무 내 힘으로만 배를 조종하려 해서 힘들었던 것 같다. 필리핀에 가서는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항해해 봐야겠다.

라온아띠를 통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혹시라도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다. 무조건 적으로 믿고 사귀고 싶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함께 울고 웃었지만 가끔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무거운 사이가 될 때가 있다. 하지만 난 이 과정이 너무 좋다. 그래야 서로 성숙해지고 서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팀원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끔 의견차이가 생기고 서먹한 시간이 있어야만 서로 성숙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 팀은 아직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Salamat po AnYang ☺



‘단순하게 살자’

마지막으로 안양Y에서 만났던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아이들은 정말 예쁘다. 가끔은 밋고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아직 순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뻐 보인다.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은 어른들도 복잡한 문제에 대면했을때 아이들처럼 단순하고 예쁘게 생각 할 수 있는 면들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집중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연장자로서 항상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Salamat po AnYang ☺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무지개!’ 부르며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은 나를 무지개라 불렀다. 7가지 빛깔이 합쳐져야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안양에서 만난 여러 가지 빛깔은 나를 더 꽃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안양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따뜻함이란 빛깔은 지친 삶 속 위로가 되어주었다. 이젠 식구가 되어버린 멋진 어른 분들이 가득한 안양 YMCA,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스포츠탄 아이들, 다시 일어 설 수 있게 해준 인생학교 친구들,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주시던 생협 선생님들, 삶을 되돌아 보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사람책 모든 분들, 감기 때문에 자주가던 병원 의사 아저씨, 간호사 이모, 약사 선생님들 등. 안양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이 감동이었다. 이들의 사람냄새가 아직도 마음 속 깊이 베어있다. 사람냄새로 향기로웠던 모든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또 안양은 나에게 사람을 만나고 삶을 만나며, 더 아름다운 꿈의 빛깔을 선물해주었다. 막연하고 막막한 24살의 고민을 다는 아니지만, 꿈의 방향을 더 단단히 해주었다. 무엇보다 이곳 생활이 고마웠던 이유는 함께 살아가는 게 당연한 세상임을 알려주었다. 함께 살아가는 게 당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내게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그 희망을 실현해 나가는 순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안양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게 된 고민, 고민에 대한 답 그리고 앞으로의 고민들. 이 모든 순간 순간은 내게 성장의 빛깔을 선물했다.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생각들을 나누며 배울 수 있었다. 꼭 학문을 통해서만, 글을 통해서만 얻은 것이 ‘배움’이 아닌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글을 쓰거나 몸으로 하는 활동 을 하는 순간이 ‘배움’이 될 수 있었다.



Salamat po AnYang ☺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이러한 귀한 배움을 통해 나는 ‘고민’이라는 또 다른 배움의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 나는 성장 할 수 있었다. 그 것으로 충분했다. 앞으로 필리핀에 가서 또 다른 고민 속의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안양으로부터 시작해 앞으로 푹푹 뭉쳐 성장해 나갈 나의 참 귀한 인연, 나의 빛깔이 되어줄 우리팀.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잘 지나왔다. 오르막 같던 지난날들을 지나 우리는 정상을 오르고 있었다. 이들과 함께 정상에 서서 아름다운 날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앞으로도 필리핀에 가서 지금처럼 이들과 함께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다가오는 우리의 시간들이, 앞으로 더 의미 있도록 더욱 사랑하고 아껴주길 !





Salamat po AnYang ☺



‘낮선 환경 속에서 나답게 살아보기’

국내훈련을 한달 정도 받으면 체계도 잡히고 뭔가를 알 수 있을 듯 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고 더 막막해져서 더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싶어졌다.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것도 나름 가치 있는 것 같다. 매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했던 내가 싫어 휴학한 후 살아보려 했지만 맘처럼 되지 않았었다. 나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계속 고민하고 행동하고 어떻게든 더 역동적으로 살아보려고 나 자신을 힘든 곳으로 내몰았던 것 같다. 국내훈련을 하면서 오기 전 나의 몸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망가져있고 지쳐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여기 와서 나의 몸을 챙기려고 노력했고 팀원들이 그것을 도와줬기에 망가져있는 몸을 갖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에 이곳은 매우 여유롭지만 그 여유로움이 날 힘들게 했었다. 매일 매일 일상에서 여유로움을 갈망했지만 막상 그 여유로움을 얻으니 어떻게 그 여유로움을 사용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이 여유로움 속에서도 나는 계속 답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더 유익하게 여유로움을 보낼 수 있을까?는 생각 등... 그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해왔다. 그러나 여유로움은 답이 없고 그냥 그냥 보내도 되는 그냥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닐 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여유로움을 즐기는 법? 익숙해지는 법? 을 고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매번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너를 챙기면서 살고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만큼 난 나를 학대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해봐야 하고 계속 도전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한 달에 두통약 한 통은 기본으로 먹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다. 아파도 그 순간이 행복했으면 된것이고 그게 나의 행복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일은 실례라는 생각에 혼자 뭐든 알아보고 해보려고 해왔었다. 처음 막내로 지내면서 낯설었던 것은 사실이다. 팀원들 대부분이 장남, 장녀로 살아온 터라 주는 것에 익숙한 팀원들이 대부분이었고 나 역시도 그랬다. 처음에는 팀원들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참아보려고도 했었다. 점점 나를 잃어가는 기분도 들고 내가 아닌듯한 느낌도 들었다.



Salamat po AnYang ☺



‘낮선 환경 속에서 나답게 살아보기’

그렇기에 현재는 서로 이야기를 했고 그 중간 점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여기 오기 전에 계속 남의 다름을 인정, 이해하는 정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 계속 남을 이해해보려고 하고 맞추다 보면 그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년간 다른 환경, 가치관 등을 갖고 살아온 팀원들을 만나면서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선의 적정선을 배워가는 중이다. 이제부터 약 6개월을 살면서 나만 생각해도 안되고 무조건적으로 남만 생각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계속 서로의 생각을 들으면서 중간 점을 찾아가보려고 한다. 국내훈련 한 달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달이었던 것 같다. 국내훈련 순간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도 내 추억이고 사랑해야 한다고 본다. 처음에 즐거운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한 나의 말이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했냐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현재 나를 다시금 일으켜주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모든 추억은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처음보다 필리핀의 5개월이 더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그냥 내가 해왔던 생각 방법대로 부딪혀보려고 한다.

머리 속은 매우 복잡하고 답답하지만 현재 난 에세이에 이 말을 적으려고 한다.

"그 상황에 닥쳐보면 뭐든 되겠지 :)" 라는 이 말 아무생각 없는 이 말 난 이말을 사랑한다. 생각은 생각에서 끝나지만 말과 글로 쓰면 그 말과 글은 사실화가 된다고 생각한다. 생각은 복잡해도 말과 글은 아무생각없이 단순하게.

그냥 날 믿고 팀원들을 믿고 해봐야겠다. 이제까지 잘 해왔고 잘 이겨내왔고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철원, 파주, 안양에서의 1개월을 어찌되었든 살아냈으니 필리핀 평가시난의 5개월 어찌어찌 살아봐야겠다!





RaonAtti



의 이야기,

필리핀 팜가시난에서도 계속됩니다!